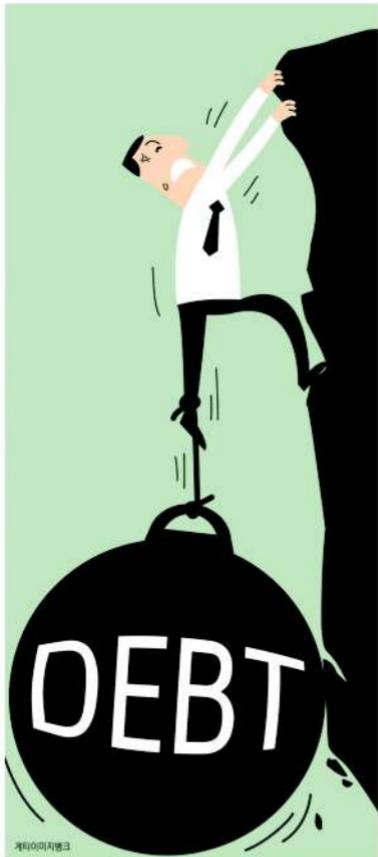


우리나라 경제 짓누르는 '가계빚 폭탄'



게티이미지뱅크

Cover Story ■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

한국의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5개월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의 장기추세 비율은 올해 2분기 106.3%로 2021년 3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꾸준한 '트렌드'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채 확대와 연체율 증가가 '조용한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같은 패닉이 없어도 금융권 부실을 키우고 가계와 기업 등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천연히 경제가 잠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4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 합산 가계부채 잔액은 686조 11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월 682조 3294억원에서 한 달 만에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21년 9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불어난 속도는 여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 1위입니다. 2012년 약 154%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동안 무려 49.8%포인트 급등해 2022년 기준 203.7%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규제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위기는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대출창구부터 점차 축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증가분의 91.44%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와 특별보금자리론 대상 축소를 발표하며 부동산 관련 대출 조절의 신호탄을放きました. DSR(총부채원리금상환률)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정부의 가계대출 과열 해소 대책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달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법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달 1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율을 0.15%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물들었던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인터넷은행 또한 대출에 연령 조건을 신설하는 등 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펼치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를 내린 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물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이미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부채는 오히려 점점 확대됩니다.

전자이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INSIDE



알뜰 여행 계획한다면

6 '마친 물가'에 긴장 왜

7

멀쩡한 일상 이끄는 힘

11 '늙은 세포' 왜 커질까

14

좋은 칫솔·치약보다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



권민수 침실위드치과 원장
(종합치의학 전문의)

청소년 치아 건강 이야기

어떤 칫솔로 닦아야 더 잘 닦일까?

치아 건강을 위해 어떤 칫솔을 쓰면 좋으냐고 물으시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종 “좋은 목수는 장비 뒷을 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비·기구를 쓰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칫솔이라는 기구보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꼼꼼하게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칫솔이 판매되고 있어 어떤 칫솔을 써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이탈리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먼저 칫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 치아 두 개 정도로 결코 정도가 좋습니다. 그기나 너무 작으면 구석구석 닦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효율이 떨어져 시간이 걸리고 손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일반인 수준에서 칫솔 모의 헤드과 부드러운 정도까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탉 상태에 따라 보통 또는 부드러운 칫솔도 사용할 수 있긴 하나 통장 손등에 대고 쓸 때 아프지 않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칫솔모는 너무 빛깔이 것보다 차라리 악간 부드러운 정도가 좋습니다. 칫솔모가 빽빽하고 거친 느낌이 든다면 잇몸이 내려갈 수 있고 장기간 사용 시 치아가 마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칫솔모의 부드러운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체 시기입니다. 칫솔모가 많이 구부러졌거나 변형됐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통상 3개 월마다 바꿔주길 권합니다. 칫솔 손잡이는 잡고 닦을 때 손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다 괜찮습니다.



제티이미지뱅크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전동칫솔을 쓰는 것이 치아 관리에 더 효과적인가”입니다. 원래 전동칫솔은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전동칫솔과 일반칫솔 간 양치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동칫솔도 치아 면에 대충 대고 단시간에 끝내버리면 치아 사이사이에 붙은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동이나 수동이나보다 올바른 양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치과에서 관찰해보면 동일한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동칫솔이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치아 관리에 좀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일반칫솔로 꼼꼼히 잘 뒹는 분이라면 굳이 전동칫솔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워터파이어라고 치아 사이사이에 높은 수압의 물을 분사해주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이 사이에 잘 끼는 분이나 임플란트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젊은 학생이나 잇몸이 좋은 분은 일반칫솔로 충분합니다. 근래에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치아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기 쉽게 개발된 칫솔도 있습니다. 효과

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격은 확실히 일반칫솔보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종합해 말씀드린다면 잇몸에 무리가 안 갈 정도의 일반칫솔을 사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닦고 3개월이 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칫솔의 보관도 중요합니다. 주로 화장실 세면대 위 풍에 가족들 칫솔을 함께 담아두거나 개별 칫솔걸이에 꽂아두는 식으로 보관합니다. 가급적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꽂아두시고 보관통과 칫솔걸이를 주기적으로 잘 닦아 광원이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암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한 성분을 강조한 치약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치약은 여러 번 행구 입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만병통치약’ 성분을 갖고 있다는 치약보다 올바른 칫솔질로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치아 뿌리가 부분적으로 드러나 칠물에 닿을 때 이가 시리다면 시린 이 전용 치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팀 매경테스트 문제풀이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태양 전지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옮겨 추론한 것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태양 전지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 태양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하기 시작했다.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 | | |
|------|----|
| ① 하락 | 증가 |
| ② 하락 | 감소 |
| ③ 상승 | 감소 |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 | | |
|-------|-----|
| ④ 불분명 | 증가 |
| ⑤ 불분명 | 불분명 |

<해설> 태양 전지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한 것은 태양 전지의 수요 증가요인이며, 태양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태양 전지의 공급 증가요인이다. 태양 전지 시장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가격은 불분명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④

후원 :



경제 공부의 필수 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흥선대원군은 원래 프랑스와 손잡으려 했다



조인 강사의
한국사 엿보기

“…… 대원군이 러시아 사람들을 뽑아낼 수만 있으면 (천주교)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고 합니다. …… 그는 러시아가 조선을 위협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주교 베르느의 편지 중에서).”

서양 세력을 일제 배격하는 ‘동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유명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에게 천주교 종교의 자유를 제안했다는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모습과 달리 흥선대원군이 서양 세력인 프랑스와 협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Q. 흥선대원군은 왜 프랑스인 신부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A. 흥선대원군은 원래 천주교(서학)에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부인과 딸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고종을 기렸던 유모도 마르타(martha)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특히 고종의 어머니이자 흥선대원군의 부인이었던 여릉 민씨는 매일 기도문을 암송하며 외국인 신부에게 왕이 아들을 위해 감사의 미사를 직접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흥선대원군 본인도 천주교 신자였던 관리 남종삼에게 개인적으로 ‘서학(천주교)은 진실된 종교’라고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손을 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였습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청나라를 수도 베이징을 단번에 점령했습니다. 당시 중국 청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믿던 조선의 지배층과 관리들은 스승으로 잘 알려진 ‘박구수(사신)’와 ‘오경석(여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베이징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얻었습니다.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의 낭하강지 주진과 조선에 대한 통상 요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1864년 2월 러시아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경흥부에 통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어 1865년 9월과 11월에는 많은 러시아인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 외교 문서를 끌고 직접 낭하강으로 내려가겠다고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러시아 군인이 영릉만에 나타나 곧 러시아 대대 통상을 위해 육로로 국境을 넘을 것이라고 할히까지 했습니다. 조선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천주교를 믿던 낭종상을 비롯한 일부 조선 관리를 흥선대원군에게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지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천주교 종교의 자유와 조선의 안전 모두를 보장받고 사람들로부터 조선을 지키는 애국자로 큰 명성까지



흥선대원군.

영·프·청나라 점령에 큰 충격
조선에 러시아 위협 고조되자
프랑스와 수교 협상까지 구상

러 위협 가시자 쇄국정책 돌입
청의 서양인 처형에 자극 받아
병인박해 등 대대적 종교탄압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흥선대원군 역시 조선의 안전을 위해 ‘먼 곳의 오랑캐로 가까운 곳의 오랑캐를 견제하는 이아제(以夷制夷)’를 궁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낭종상을 서계 조선 정부와 프랑스 정부를 연결할 베르느 주교와 만나려고 계획합니다.

Q. 그럼 왜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무자비한 천주교 탄압을 하죠?

A. 흥선대원군은 베르느 주교를 곧장 만나려고 했으나 포교를 위해 황금도에 머물던 그를 데려오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프랑스인 신부 역시 천주교 신자들이 금지 기호로 내려오거나 험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한 사람을 지나 겨우 몇십 걸음 거리를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후 배를 깨뜨려 구리와 철은 대포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근세조선정강의의 일부)

흥선대원군은 매우 카리스마가 강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개성이 강하면서도 자신감이 강했다.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항상 존경했다’는 헐버트를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천주교 신부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찌면 서양 과학기술을 내심 동경하면서 그들과 싸웠던 것은 아닐까요?

강남대성학원 김사·전 이하영과 역사교사

던 조정의 대신들이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들과 교섭 하려면 흥선대원군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의 위협도 사라지고 청나라의 천주교 탄압이 시작된 그때는 고종 즉위 3년째로, 흥선대원군에게 그 무엇보다 체제의 안정이 중요했습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시킵니다. 서해안의 주요 포구가 봄비로 지방 관에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병인박해).

병인박해 때 조선에 머물던 프랑스인 신부만 겨우 천주교 신자들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프랑스인 신부의 처형에 분노한 프랑스 극동 함대로즈제독은 강화도에 상륙하며 조선과 전쟁을 치렀습니다(병인양요).

2년 뒤 통상을 요구하던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머리다 심폐해 도망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의 묘를 파헤치는 서양 사람들은 ‘부모, 임금도 없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집권 초기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하려 했던 흥선대원군의 유연한 외교 전략은 병인양요(珍慶)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겪으며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될 수준이 되었습니다. 서양인들과 대포를 쏜 전쟁을 치른 조선에서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Q.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집권 시기 내내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모든 것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 기술, 무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병인양요를 겪으며 강력한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했던 흥선대원군은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고 강화도에 진무영을 설치해 한강 입구를 지켰습니다. 북쪽 러시아에 대한 화포군도 따로 양성했습니다. 4만냥의 예산으로 화포를 비롯한 신식 무기 제작에 힘썼습니다.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상선 체너럴서먼호가 암탉을 하다가 뱃방울과 백성들에게 불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흥선대원군은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대동강에 가라앉은 체너럴서먼호의 엔진과 부품들을 인양해 김기두 등 기술자에게 교란을 만들고 명령했습니다. ‘배를 끌어 강으로 가져왔다. 북한으로 증기기를 일으켜 바퀴를 돌게 했으나 배는 무겁고 증기의 힘이 약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대원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성들이 배를 구경했다. 한참을 지나 겨우 몇십 걸음 거리를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 후 배를 깨뜨려 구리와 철은 대포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근세조선정강의 일부)

흥선대원군은 매우 카리스마가 강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개성이 강하면서도 자신감이 강했다.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항상 존경했다’는 헐버트를 비롯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천주교 신부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찌면 서양 과학기술을 내심 동경하면서 그들과 싸웠던 것은 아닐까요?

강남대성학원 김사·전 이하영과 역사교사

갈팡질팡 정부 정책… 빛투·영끌 부추겨

금융당국, 눈덩이 가계부채 규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정책 1순위”라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미시·기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폭증의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위해 내놓았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꼽힙니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위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를 누르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 기준을 강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Q. 가계대출 얼마나 심각한가요.

A. 지난 10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686조119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6825억원 (5%)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폭이 전달 (1조5174억원)보다 두 배가량 확대된 겁니다. 월 증가폭은 2021년 10월 (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주담대가 2조 2504억원 늘었고, 신용대출도 5307억원 증가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대출 규모 자체가 늘었습니다.

Q. 원인은 무엇인가요.

A.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91%는 주담대 확대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걸어온 주범으로 꼽힙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규모를 줄여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고 만기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 사이에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50년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가계대출 폭증 주범으로 꼽힙니다

Q.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A. 가계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대출 조건이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0년 만기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을 최대 40%으로 줄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했습니다. 더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Q. 가계대출이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A.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작년 기준 203.7%입니다.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차입자 신용 확대로 소비·주택 구매 등이 활성화되며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주 소득 개선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면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이 어려워집니다.

Q. 20·30대 ‘영끌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A.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대출 금은 7900만원으로 2019년 2분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9%, 고령층이 1% 증가한 것과 비교해 청년층의 대출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금은 5000만원가량으로 청년층 가계대출금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반복된 집값 폭등이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해 관련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 점차 인상이 확산되면서 다시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포모 신드롬(FOMO·자신만 뒤쳐져 있다는 두려움)도 이유로 거론됩니다. 부동산 정책과 통화 긴축 정책의 엇박자로 향후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수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대출한도 더 낮출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책으로 연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시중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개인의 대출한도를 낮추고 개별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대출받은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차주가 1년 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그 사람의 연 소득으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 중 많은 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R 산정 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

함입니다. 은행은 DSR을 통해 개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 DSR 비율을 약 4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상승분을 고려해 설정하는 가산 금리를 의미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하면 금리 변동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출 수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원리금 상환 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

정에서 이자 비중이 매우 높아 금리 인상 시 개인 상환 부담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까지 포함해 개인의 DSR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4.5%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으로는 가계부채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계부채 금증의 원인인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 둘째, 내수경제 침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보다 대출 수요를 잠재우는 것이 저임금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결국 화물 매각…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고비 넘겨



매일경제

대한항공, EU에 합병 시정안 제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대 고비를 넘게 됐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한 시정 조치안에는 프랑스 파리 등 유럽 4개 중복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에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안이 담겼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조원 규모 재무지원 방안도 밝혔다.

매일경제 11월 3일자 A6면

일터 늘어난 30대女, 절반 이상이 무자녀

국내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년 만에 8.8%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변화의 주요 요인은 '자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미묘한 환영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데 따른 변화인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매일경제 10월 31일자 A2면

은행 부담금 형태 '횡재세' 윤곽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황재세 도입을 검토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황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은 이자상환부담에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때문이다.

매일경제 10월 30일자 A1면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NIE 준비하기

- 기업 간 인수·합병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해 봅시다.
- 전환사채(CB)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NIE 준비하기

- 경제활동참가율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3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다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인구 절벽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NIE 준비하기

- 횡재세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횡재세를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횡재세 도입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문제로 풀어보는 뉴스상식

다음 빙간 A에 들어갈 용어는?

- (A)가 세계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춘 기능성 식품 개발과 과학적으로 규명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A)는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뜻하는 용어로, 2025년 기준 미국 시장 규모만 4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A) 시장에 식품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일반 식품부터 병원 환자식·처방식 시장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 ① 메디푸드 ② 레드바이오 ③ 그린바이오
④ 페스트푸드 ⑤ 푸드마일

정답 ①. 메디푸드에 관한 설명이다. 건강 관리를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대 유망 식품 중 한 부문으로 메디푸드를 선정하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② 레드바이오란 생명공학을 의학·약학 분야에 적용한 개념이다. 혈액의 불온색을 분별 불인 명칭이다. 질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신약 개발, 진단시약, 줄기세포 등이 포함된다.

③ 그린바이오란 생명공학이 농수산업 분야에 적용된 개념이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에 바이오 기술을 기여해 기능성 소재와 식물 종자, 첨가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④ 페스트푸드란 주문 후 단기간에 완성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리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조리 가공이 끝난 형태로 점포에 제공되고, 점포에서 조금 더 가공해서 판매한다.

⑤ 푸드마일이란 농산물 등 식료품이 생산된 곳에서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른다. 푸드마일이 길어질수록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흔히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라고도 한다.

알뜰 여행 계획한다면 '빅맥지수' 낮은 나라 가볼까



최별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각국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
환율 감안해 달러로 바꿔 비교

여행지 물가 얼마나 비싼지
빅맥지수 따져보면 알 수 있어

북유럽 일부 국가·스위스 빼면
화폐 구매력 달리보다 저평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국내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고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해외로 나갈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환율을 지식도 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환율을 배울 때는 어렵기만 했는데, 한 번 해외에 다녀오고 나면 해당 지역 환율은 훨히 알게 됩니다. 환율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이지만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환율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언급되는 환율은 대체로 원·달러 환율을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와 미국 화폐인 달러화가 교환되는 비율입니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환율이 1200원이다' 혹은 '1300원이다'라고 하면 이 때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뜻합니다.

엔데믹(enemic·풍토병화된 감염병)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과 출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출장 방학에 다른 나라로 갈 기회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유럽이나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치안만 담보된다면 남미나 동남아시아도 괜찮은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비를 쓰다니는 경정화 미국이나 유럽을 선택해 아무래도 비싼 물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숙소에서 묵고 저렴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동남아이나 남미로 가면 같은 예산으로 활빈 좋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령 뉴욕은 20만 원 혹은 30만 원 이상을 내도 모델 수준의 열악한 숙소를 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동남아에서는 5성급 호텔에 체류해도 15만 원 정도이고 20만 원 가격만 지불하면 굉장히 좋은 숙소에 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서유럽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면 괜히 그런듯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빠듯한 경비 때문에 고생만 하다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나 개발도상국에 여행을 다녀오면 실속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따라 여행 경비 차이가 큰 것은 물가 영향도 있지만 환율이 체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빅맥지수는 환율에 따라 여행 경비 차이가 큰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원래 빅맥지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각국의 대략적인 물가를 감



제티이미지뱅크

안해 화폐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지표입니다. 언론사에서 만들었지만 어떤 경제이론보다 직관적으로 통화 구매력을 통해 적정 환율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빅맥지수는 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빅맥' 가격을 명목환율로 환산해 달러로 표기한 값입니다.

최근 빅맥지수를 살펴보면 미국보다 빅맥지수가 높은 나라는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판매되는 빅맥 가격은 미국의 빅맥지수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구매력평가 설'에 따르면 화폐의 본질은 물건을 구매하는 능력에 있으므로 외환시장에서 각국 화폐의 가치는 구매력에 따라 평가받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가 1000원이며 1000원짜리 한정으로 사과를 한 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5000원짜리로는 사과 5개를 살 수 있

습니다. 그럼 화폐시장에서 5000원권 지폐 1개는 1000원권 지폐 몇 개와 교환될까요? 더 멀랄 것도 없이 5개입니다. 1000원권과 5000원권 지폐의 교환 비율은 정확히 5 대 1입니다. 그럼 다시 빅맥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빅맥 가격을 5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빅맥이 5000원이라면 빅맥은 기준으로 했을 때, 1달러는 얼마의 원화와 교환돼야 할까요? 5000원을 5달러로 나누면 1000원입니다. 그럼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적정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얼마인가요? 대략 1300원입니다. 한국의 빅맥지수는 5000원을 1300원으로 나누니깐 대략 3.8달러입니다.

이처럼 빅맥지수는 각 나라에서 판매되는 같은 햄버거 가격을 해당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명목 환율에 따라 달러로 구매하는 비용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미국인은 한국에 와서 원화로 환전한 후 햄버거를 먹으면 미국에서 먹을 때보다 반값에 햄버거를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5달러를 주고 햄버거를 먹어야 하는데 한국에 와서 5달러 환전하면 65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햄버거를 사 먹어도 1500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빅맥지수는 실제 각국 화폐가 갖는 구매력에 비해 달러화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각 나라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은 수없이 많지만 단순하게 빅맥을 기준으로 각국 화폐의 구매력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빅맥 햄버거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 가치를 평가했을 때 달러화보다 외환시장에서 고평가된 화폐는 유리회를 쓰지 않는 북유럽 일부 국가와 스위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빅맥 순위를 보면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해당 국가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혹은 우리가 환전해 여행을 갈 때 국내보다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요금을 제외했을 때 빅맥지수가 낮은 나라를 선택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풍족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알쓸당총 OX 퀴즈



- 외환시장에서 명목 환율(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
-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
- 빅맥지수가 높은 나라 사람은 빅맥지수가 낮은 나라를 여행할수록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정답 1. × 2. × 3. ○

‘미친 물가’에 한국은행이 긴장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관성 #임금-물가 소용돌이 #물가안정목표제 #디스인플레이션 #급랭전략 #점진주의 전략 #희생률

수능 대비 밀줄 빠 경제용어이론

1. 물가안정정책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해 민간(가계·기업)의 지금 대처거래에 적응되는 시중금리와 자금의 양을 조절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라는 두 가지 통화정책 수단으로 민간대출(소비·투자)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경기 변동(경기 침체·경기 과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 증가를 통해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하고, 경기 호황으로 경제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 호황이나 불황 국면을 맞아 의도적으로 민간대출을 줄여서거나 낙관해 지나친 경기 과열이나 경기 침체를 막는 정책을 경제안정정책 또는 경기안정정책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이 달성을 해야 할 최우선 목표로, 물가 불안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민간의 구매력 감소를 가져와 소비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경제 침체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더욱이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때 기대금리상승률이 높아져 물가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이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그 자체로 실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인플레이션 관성(inflation inertia)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정책의 일관화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통화 공급 축소와 함께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굽임없이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 고조가 임금 상승률을 부추기고 이것이 또다시 인플레이션 심화를 불러오는 악순환, 이른바 임금-물가 소용돌이(wage-price spiral)를 몰기 위한 노력인 셈입니다.

현행 물가안정정책은 목표인플레이션을 제시하고 목표치보다 물가상승률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체소가게에서 시민들이 영양 드체소를 고르고 있다.

비율을 수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물가 안정을 위해 실업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실업 증가라는 사회적 고통을 덜 가져오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 디스인플레이션 전략에 수반되는 방법을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 낮추기 위해 발생하는 실업률 증가분의 누적치를 계산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희생률(sacrifice ratio)이라고 합니다. 가령 현재 물가상승률이 6%이고 목표인플레이션이 2%일 때 목표인플레이션을 한 번에 달성하면서 한 번에 물가상승률을 3%포인트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통화 공급도 급격히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현재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면 희생률은 실업률 증가분 3%포인트를 물가상승률 하락분 4%포인트로 나눈 0.75가 됩니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6%에서 4%로 한 번 낮추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다시 4%에서 2%로 낮춘다면 하면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고 통화 공급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처음 통화 긴축 때 1.5%포인트, 두 번째 통화 긴축 때 1.0%포인트 증가했다면 희생률은 실업률 증가분 누적치 2.5%포인트를 물가상승률 하락분 4%포인트로 나눈 0.625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점진주의의 전략이 금평 전략에 비해 희생률이 더 적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고통이 더 적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점진주의 전략이 금평 전략보다 항상 더 물가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시기별로 경제 상황이 다른 만큼 물가 안정에 유용한 전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물가안정전략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물가 안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감고 오래 받는 것이 낫기도, 또 때로는 고통을 팔고 강하게 받는 것인 낫기도 합니다.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물가가 임금상승 부추기고
다시 물가상승률 끌어올리는
임금-물가 소용돌이 불러와
금리인상·통화축소 정책 사용

물가안정책이 실업증가 불러
경제 상황따라 신중히 집행

이 높은 경우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 목표치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경우 금리 인하와 통화 공급 증가를 통해 목표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을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깃ting-inflation targeting)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위기 직후인 1997년 말 한국은행 법을 개정하면서 1998년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상 한국은행의 목표인플레이션은 3±5%포인트입니다. 이때 목표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상 및 통화 공급 감소와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dissinflation)이라고 합니다. 즉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안정책의 또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2. 물가안전략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

다. 급격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공급률 줄이는 등 짧은 기간에 신속히 물가 안정을 기하는 방법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단기간에 급격히 금리를 상승시키고 통화 공급률 줄여 민간대출 감소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글랭 전략(cold-turkey strategy)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급격히 경기를 끊는 시각적 험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씩 반복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공급률 감소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민간대출을 감소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목표치까지 하락시키는 방법을 점진주의의 전략(gradualism)이라고 합니다.

물가안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전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시사점을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는 실업률이 현재보다 상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 증가와 같은 고용지표 악화는 물가 안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따라서 두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 핵심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에 달린 경제 상황에서 더 적은 사회적



지붕이의 용어사전 임금-물가 소용돌이

통상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임금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며 이러한 요구는 어느 정도는 관철되며 마련이

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의 협상력이 더 강할 경우 더 뚜렷이 관찰된다. 이렇게 높아진 임금은 기업의 비용 인상 요인으로 기업은 이윤 감소를 막기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촉발된 임금 인상이 다시 제품 가격 상승을 불러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예비 고1 국어 공부? …‘등고자비’ ‘우공이산’ 따라가자



가유진 선생님 이후스북 연간검토단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예비 고1’.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둘째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교실 한구석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도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니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 국어 영역 학습법을 소개한다.

등고자비(登高自卑)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국어는 문제만 많이 풀다고 해서 성적 향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중학교 과정의 공부가 부족했다면 겨울방학을 이용해 빠르게 복습해야 한다. 미리 기본을 다져 놓아야 나중에 후회하며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 특히 문법이나 문학 개념들은 한 번 배워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스스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면 반복 학습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산유수(青山流水) : 무른 산에 흐르는 물처럼 막힘 없이

문학은 한국사의 흐름과 함께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창작 연대를 알 수 없는 ‘공부도 하거’ 등의 고대가요부터 1980년대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은 우리의 역사와 담고 있으며, 역사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시대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시켜 보면 낯선 작품도 조금은 쉽게 느껴질 것이다. 물 흐러듯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대별 문학 작품을 꼭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 :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독서 영역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 암기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한 지문이라도 풀어보며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내용 일치 문제는 모든 지문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지문과 선지자를 연결시키며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또 지문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 내용 전개 방법, 논증 방법 등 기본적인 독해 개념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매일 조금씩 학습을 하다 보면 완벽한 독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편삼절(韋編三絕) : 책끈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공자는 책을 하도 많이 읽어서 책을 엮어 놓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휘 도서는 3회독을 목표로 하길 추천한다. 어휘 뜻풀이를 유기보다는 유의어, 반의어들과 함께 맥락 속에서 쓰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해 ‘나만의 어휘집’을 만드는 것도 좋으나, 어휘집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휘집을 정리하는 시간이 어휘집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길어지면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헬스장은 1월에 사람이 가장 많고, 모든 문재집의 1단원은 항상 빼곡한 필기와 함께 너털거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완연한 봄이 되면 1월에 굳게 마음먹었던 의지는 희미해지고 3단원쯤 되면 문재집 속 손 한 번 연 닫은 종이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이제 고등학교니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학습량에 옥심내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문학’과 ‘독서’를 큰 즐기고 잡고 ‘여휘’와 ‘문법’을 작은 즐기고 이어 붙이며 중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매년 3월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1 학생들은 첫 수능형 모의고사를 치른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3월 학평)가 그것이다. 3월 학평에서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중학교 전 범위를 바탕으로 출제되며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을 기분좋게 시작하려면 출제 3월 학평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고등학교 입학 전 자신의 국어 실력을 점검하고 겨울방학 공부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선 조언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중학생 때와 다른 학습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미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3년이라는 긴 대입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개인적 저작

예비 고1, 효과적 선행학습으로 기초 다져야



백성종 강사의
신기한 수학교육

중3학생의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할지 부모님과 학생들이 고민하는 시기가 올해에도 어렵잖은 찾아왔습니다. 많은 예비 고1 학생은 지금 이파 분석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예습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만 과한 선행학습을 장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학생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는 선행학습을 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수학 II, 더 나아가 미적분까지 선행학습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지는 사실 학생의 수준과 진학하려는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학생마다 현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본인의 상태와 현실적인 목표에 맞춰 공부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접하는 중위권 학생에게 어떤 부분을 짚면서 예습·아래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 I'라는 과목을 1년간 공부합니다. 편의상 수학(상)과 수학(하)로 나눠서 1학기와 2학기 때 배운데요. 개인적으로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에게 과한 선행학습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중학교 3년간 수학 과정을 되짚어보고 복습하면서 자신에게 비어 있는 부분이나 약한 단원을 메꾸어 놓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수학은 이전에 학습한 개념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면 다음 내용을 배울 때 굉장히 자리를 받는다는 것에 공감할 겁니다. 기초를 알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위계상'이라 고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면 수학과 목의 위계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이전에 배운 내용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단원이 대다수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매일8

수학은 기초개념 계속 쌓여 한번에 제대로 이해해야

중위권·중상위권 학생은

과한 선행학습 도움 안돼

중학교 3년 과정 복습이 우선

고1 수학 단원 총 6개로 구성

1단원 다행식 기본기 바탕

속도 높이는데 집중해야

다. 고1 수학에서 나오는 내용 중 절반 이상은 중학교에서 이미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수학을 소홀히 했거나 중학교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라면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복습을 병행해 다시 기초를 다지기를 추천합니다.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은 복소수부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보다 수의 체계를 한 단계 더 옮겨주는 단원입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실수의 분류와 뛰어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실수의 분류 체계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학은 위계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이차방정식 내용까지 이어지는데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와는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수에 적응되면서 많은 학생이 중학교 때 삶이었던 함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함수를 살피는 데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잘 적용하려면 함수를 필수입니다.

함수는 방정식, 부등식과 내용이 어긋나고 고등학교 수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함수가 벅찬 친구들은 중학교 책을 복습하고 와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확실하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알아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등식 단원은 이차부등식과 이차함수를 잘 연결해서 생각하는 법을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고 두고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마찬 가지로 고등학교 내내 나오지만 중요도에 비해 은근히 학생들이 잘 잊어버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학기 마지막 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들이 좌표평면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다행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인데요. 앞에 세 단원을 보통 1학기 때 배우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학교에 따라 1, 2학기에 나눠 진행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삼각형의 성립 조건 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본 지식이 계속 요구됩니다. 어려워졌던 도형의 성질을 복습해 때마다 그 도형의 또 다른 성질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친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은 아마도 수학일 것입니다. 많이 주는 것.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분이 지금 주는 그 개념과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열기설기 얹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공부보다는 보다 흥미로운 고등수학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수학의 재미를 찾아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치예술원 수학강사

호텔도 날짜도 같은데 가격은 달라…무슨 일 일까요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경제

A. 와, 결제 직전 전화를 걸어온 친구에게 고맙겠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비싼 가격으로 예약했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다양한 학교들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 앱을 깔아두고 이용하곤하는데, 우연히 포털을 통해서 그 쇼핑몰에 들어가니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다 뜯겨 있죠? 이상해서 몇 가지 상품을 비교해서 검색해봤는데, 대체로 포털을 통해서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저렴한 거예요. 뭔가 손은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 후로 어떤 상품을 살려고 할 때 포털에서 먼저 검색해서 가격을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대체 왜 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다른가요?

가격 경쟁에 대해 연구해 '프라이싱'이라는 책을 쓴 헤르만 지본(Hermann Simon)은 가격을 만마다로 정의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가치만큼 가격을 지급할 의향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제품도 상황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릅니다. 가령 스타워즈의 새로운 시리즈나 나왔다고 해봐요.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를 기다리던 팬들은 당장 보고 싶을 거예요. 극장에 가서 1만5000원을 내고 보는 거죠. 몇 주가 지나면, 스타워즈 '전쟁'들은 대부분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럼 OTT에서도 볼 수 있게 대놓고, 가격을 1만원 정도로 떨어져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극장에 가서 볼 정도의 팬은 아니지만 집에서 시간이 날 때 1만원 정도 가격은 낄 위양이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요. 몇 개월이 지나면 가격은 5000원, 2000원으로 점차 내려갑니다. 구매 욕구가 높은 소비자를 먼저 흡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격을 낮춰가며 다음 소비자층을 흡수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새 스타워즈 시리즈는 높은 가격을 느끼는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영화 제작사

Q. 얼마 전 여행을 가려고 호텔을 예약했어요. 항상 이용하는 호텔 예약 플랫폼에 들어가서 예약하고 결제하시는 순간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멈췄어요. 통화가 끝난 후, 호텔 위치를 확인할 겸 구글맵에서 호텔을 찾아보다가 예약 플랫폼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호텔과 날짜인데 가격이 더 저렴한 거 있죠? 다시 호텔 예약 앱을 엽어서 확인해보니 결제하려던 범증 비싼 가격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예약 플랫폼인데 구글맵을 통해서 들어갈 때랑 바로 앱으로 들어갈 때랑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가격 결정 연구한 헤르만 지본

'프라이싱' 책에서 정의 내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

똑같은 제품, 다른 가격 책정

포털 검색으로 호텔 찾는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 유인해

비교할 시간이 아까운 고객은

호텔사이트 가격 높아도 예약



케티이미지뱅크

입장에서는 이익이 커지는 거죠. 새로운 기종의 스마트폰을 처음에는 비싸게 출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격을 내리는 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이처럼 제품에 높은 가치를 느끼는 소비자에겐 높은 가격을, 낮은 가치를 느끼는 소비자에겐 낮은 가격을 부여하는 기업의 전략을 '가격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을 두고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가격차별 전략이 있어요.

구글맵을 통해서 호텔 예약 플랫폼에 들어간 경우와 호텔 예약 플랫폼에 바로 들어간 경우의 가격이 다른 것도 가격차별 전략의 하나로 보입니다. 구글맵에서 특정 호텔을 선택하면, 그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가격이 나올 거예요. 다양한 예약 플랫폼에서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보고 어느 플랫폼에 서 예약할지 결정하게 되겠지요. 곧장 호텔 예약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가격을 비교하기가 힘들고요.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구글맵이나 포털을 통해서 여러 플랫폼의 가격을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글맵이나 포털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가격을 좀 더 낮게 설정해둔 걸 거예요. 그에 반해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는 플랫폼에 들어가 바로 예약하는 사람은 가격에 덜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요. 항공 시장에서는 '같은 비행기라도 좌석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가격차별을 통해 이익을 높이는 전략, 이해하셨나요? 이런 사례들, 생활 속에서 더 찾아보세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실현경제부 운영

“돈 잘못 송금” 은행에 바로 연락…계좌·이름 확인하는 습관을

◆ 피땀이 흘려주는 용돈 생활

얼마 전 대학생 A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친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A씨가 친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돈을 원래 보내려던 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잘못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는 꺼자와 함께 잘못한다는 의미이며 송금은 한자로 보낼(送) 쪽, 쇠(金), 즉 돈을 보내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원료로 송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만약 가족이나 친구에게 잘못 보냈다면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면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돈, 잘못 송금했다면?

첫 번째, 은행에 착오송금 알리기: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잘못 송금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용한 은행에 연락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예금을 차별적으로 반환할 것을 안내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하기: 잘못 보낸 송금액이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라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친진해서 반환할 것을 권합니다. 이후에도 수취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같은 법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도움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송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송금해야 한다면 반드시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을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해가 뜬다는 인과추론…멀쩡한 일상 이끄는 힘



한충만 감사의
일상에서 찾는 철학의 역설

내일 갑자기 해가 뜨지 않는다면? 매일 걸친 등굣길이 폭카진다면? 어떤 우주를 걸친으로도 잡히지 않는 소행성이 불현듯 나타나 지구와 충돌한다면? 문학 작품들은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소재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면, 아마도 일상생활을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을 걱정하면서 잠들고, 등굣길이 꼭 껌질까 봐 불안해하며, 소행성 충돌로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을 매일 염려하는 사람은 아마 미쳐버릴 것이다.

우리가 미치지 않고 일상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대체로 우리가 겪어왔던 대로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가 떴고, 등굣길은 항상 평평했으며,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아직 없다. 우리는 세계의 패턴을 겪어보고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예측하며 살아간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항상 그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일상에서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중요하다. 과학은 이러한 패턴의 집약적인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계속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단지 패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 본 아이들의 팔동에 들어 있는 필기구의 개수가 공교롭게도 한 달 동안 매일 10개씩이었다. 나는 이 관찰을 토대로 내일도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필기구를 10개씩 넣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가? 친구들이 필기구를 경쟁했던 패턴만 본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법하지만 우리는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다. 당장 내일 수민이가 형광펜 2자루를 사 와서 예측을 깔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교훈은 우리가 과거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패턴이 공교로운 일치가 아니라 어떤 필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개념은 바로 이런 필연성 개념을 가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영수는 도둑질을 했을 때 우리를 비난한다. 바꿔 말하면, 영수

데이비드 흄과 귀납의 문제

과거 패턴으로 미래 예측

필연성으로 연결해왔지만

“필연적 연결 정당화 안돼”

흄이 주장한 세계의 균일성

상상력을 통한 습관적 결합

실생활에 유용해 유지될 뿐



의 도둑질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비난이라는 결과를 일으킨다.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도둑질에 이어서 공교롭게도 비난이 일어나는 패턴으로 추론하지 않는다. 우리는 도둑질이 비난을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도둑질과 비난이라는 인과관계는 모종의 필연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둑질은 반드시 비난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과추론은 일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학은 아주 거칠게 밝히자면 인과관계를 찾는 학문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접촉하여 그 다른 물체를 이동하게 하는 패턴이 그저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우연의 일치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학문의 대상이 될 가치는 없어 보인다. 과학자들은 그 이상을 찾고 있다. 이 물체의 운동과 저 물체의 운동 간에는 전자가 일어나면 후자가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에 관한 이런 지식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함 뿐만 아니라 과학을 성립하게 하는 주춧돌이다.

연결이 정당화될 수 없고, 따라서 인과는 세계에 대한 지식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견 활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인과 관계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가? 누가 감히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흄의 이야기를 들여보자.

고전적인 분석에 따르면 어떤 문제를 안다는 것은, 1) 그 문제를 참이고 2) 그 문제를 믿으며 3) 믿었는데 우연히 참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참이라 는 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당화해야 할 것은 미래의 전개가 과거의 패턴을 따르리라는 것, 즉 세계의 균일성(the uniformity of the world) 논제다. 흄은 문제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증명을 통한 정당화다. 우리가 헤니 연예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 균일성이 증명으로 정당화된다면 여태까지 해가 빛나는 전제로부터 내일도 해가 뜨라는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한다. 하지만 내일 해가 안 뜨는 일이 (기억상이나 때우며 지더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여태까지 해가 빛나도 내일 해가 안 뜨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흄은 증명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들은 경험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과 추론에 특히 유통이 보인다. 우리는 경험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서 미래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한다. 즉 여태까지 도둑질로 비난을 받았으면, 앞으로 누군가가 도둑질할 때 비난이 따려울 것이다. 그런데 앞서 봤듯 이 균일성이 과거의 패턴이 미래의 패턴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것, 즉 필연적 연결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한다. 흄은 이 필연적 연결을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과추론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우리는 그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관찰했을 뿐이지, 이 사건이 저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필연성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연성은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흄은 인과가 상상력을 통한 습관적 결합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습관이 비슷한 것끼리 묶고, 그것들이 마침 실생활에 유용하기에 그런 습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왜 그런 습관은 공교롭게도 유용한가? 우리의 인과적 믿음이 실제 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은 아닐까?

비싼 선물 팔고 싼 현물 사면 차익 생겨 '프로그램 매매'가 돈 버는 원리랍니다



허서운 기자의
틴재테크 첫걸음

내가 투자하려는 주식이나 채권, 혹은 부동산 가격은 눈에 보이지만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는 기업의 실적이나 금리 등 주변 변수를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물론 자산의 가치가 변하면 그에 맞춰 가격도 변하지만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정하는 가격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사이에 과리가 생길 때 그 틈을 얼마나 잘 비집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투자 수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증시 훈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주식시장에는 어떤 주식을 미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파는 계약인 '선물거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선물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가 방향을 맞히면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물은 주식에서 파생된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의 가치는 현물 주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가에 따라 움직이는 선물 가격도 최종적으로 선물 종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주가가 올라서 선물가격도 오를 때 매수 주문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면 선물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고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물가격이 주가 하락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적정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기도 하죠. 선물가격이 적정 가격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더라도 선물 만기 날에는 결국 주가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 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 중 차이거래가 바로 선물과 주식 간 일정한 관계를 이용해 순간순간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선물 종목을 포착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작 이지트렌드

프로그램 매매

기관들의 대량 주식매매 방법
선물·주식가격 들여다보다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거래하죠
대형주 많아 지수에도 큰 영향

다. 예를 들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가격이 저렴한 현물을 매수하는 식으로 동시에 매매를 하면 가격 차 이만큼의 수익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매매는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 위주로 대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율로 원유펀드 수익률 제자리?

선물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주식투자에 대한 레버리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원유나 농산물 펀드에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실물자산펀드는 대부분 선물가격을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원유 같은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선물투자 구조를 이해해야 선물종목의 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에서 오는 위험과 기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① 롤오버 (Roll Over)

원자재 펀드의 상품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선물 만기일 전에 선물 계약 만기일을 연장하는 롤오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유선물펀드가 7월 만기 원유선물에 투자를 한 경우 만약 만기일에 이 선물계약을 계속 즐고 있다면 현금을 주고 원유현물을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유가 차익을 옮기는 게 목적이던 원유펀드 원유 펀들을 실제로 사게 되면 보관할 방법도 없고 이만저만 난파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펀드의 경우 선물 만기일 전에 7월 만기 계약을 팔고 그 돈

으로 8월 만기 계약을 사서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롤오버'를 실행합니다.

② 콘탱고 (contango)와 백웨이더션 (Backwardation)

원유가격이 미래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이를 '콘탱고'라고 하고, 반대로 상황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아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백웨이더션'이라고 합니다.

선물펀드가 롤오버를 할 때 만약 콘탱고 상황이라면 즉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다면 가격이 8월 7월 계약을 편에서 더 비싼 8월 계약을 사야 하기 때문에 편으로 비용이 듭니다. 만기일에 선물과 현물의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콘탱고 상황에서는 선물가격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가까운 균율펀드 가격보다 만기 가격이 낮은 원월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원유선물펀드의 롤오버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롤오버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치솟는 경우에는 원유가격이 올라도 펀드 수익률은 고개이게 됩니다. 이렇게 원유선물펀드의 가격이 원유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올라도 펀드 투자자는 웃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물시장이 백웨이더션 상태라면 편오버 과정에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TN ETF로 승부하라〉 저자

성장 가로막힌 기업들, M&A로 돌파구 마련하죠



조은나라 세무사의
너와 나의 회계고리

국내 대규모 항공사의 인수·합병이 3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인수·합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느낀다. 인수·합병의 개념과 회계에서는 합병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알아보자.

Q. M&A는 무슨 말일까?

M&A는 &(and)로 이루어볼 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Merger & Acquisitions의 약자인 M&A는 한국말로 인수·합병이라고 한다. 인수(Acquisitions)와 합병(Merger)의 순서가 다르지만 결국 두 가지를 한 번에 부르는 것이다. 인수와 합병은 둘 다 기업의 자매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인수(吸収)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이나 권리수 받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X와 Y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 X는 Y의 주식을 많이 구매한다. Y는 자동차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영업을 하지만 X가 Y의 주식을 상당수 가지고 있으므로 Y의 주주총회에서 X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상 X가 Y를 경영하는 것이다.

반면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두 기업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업이 된다.

Q. 합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기업끼리 합치는 방법에도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흡수합병, 신설합병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은행을 흡수합병하면 시장에 B은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A은행만 남는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A+B=A와 같다.

반면 신설합병은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C면의점과 D면의점이 합쳐져 E면의점이라는 새로운 면의점을 탄생시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경우 C라는 이름도, D라는 이름도 사라진다. 이렇게 합병은 합병 당사자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

Q. 합병을 하면 재무제표는 어떻게 합칠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도 각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가정경제는 하나로 합쳐져 운영된다. 결혼 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적어서 시작점을 파악해서 하나의 가계부를 작성한다. 기업의 재



제작자: 이서봉

무제표도 비슷하게 작성하지만 기업의 합병은 '사고 파는' 형태로 인식하는 차이점이 있다.

A은행이 B은행을 흡수합병했다. 합병 전에는 A은행과 B은행이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이제 합병을 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었으니 두개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 자본의 규모를 알려주는 재무상태표를 합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단순히 더하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사실 큰问题是 두

회사의 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더하는 과정이다. 그린

데 A은행이 B은행을 공짜로 합병하는 않는다.

반면적으로는 B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합친 금액을 A은행이 지불한 대가와 비교한다. 예를 들어 B은행이 자산은 100억원, 부채는 80억원이 있었다면 B은행의 순자산은 20억원(100억원-80억원)이다. 이때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라는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

정가치는 쉽게 표현하면 시장가치로, 시장에서 지금 거래할 때의 가격을 의미한다.

A은행이 합병할 때 B은행에 대가로 30억원을 주었다면 공정가치로 순자산이 20억원인 회사를 사면서 3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 차에 10억원을 영업권(goodwill)이라고 한다. 개인이 물건을 살 때 생각해보자. 20만원짜리 카메라를 살 때 2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군가 이 카메라를 30만원을 주고 싶다. 왜 그랬을까? 이 카메라는 한정판인데 전 세계에서 딱 한 개 남은 것일 수도 있고, 이 카메라의 렌즈가 다른 모델과 호환되어는데 아주 귀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20만원에 살 수 있는 카메라를 30만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10만원에 해당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합병할 때에도 위와 같다. A은행이 순자산 20억원인 B은행을 30억원을 주고 산다면 A은행 입장에서는 10억원을 더 주고라도 B은행을 합병하는 것은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B은행의 고객이 자연스럽게 A은행의 고객이 되므로 고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B은행의 운영 시스템이나 전산 프로그램 등이 걸쳐 있어서 A은행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영업권이라고 하며 회계상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A은행 재무상태표에는 B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합쳐지면서 무형자산 영업권 10억원이 추가된다.



1. 인수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
2. 합병을 할 때 합병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면 해당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
3. 합병 후 재무상태표를 보면 합병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했는지 혹은 미발표는지 알 수 있다. ()

정답 1. × 2. ○ 3. ○

Q. 영업권과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

위와 반대로 B은행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20억원 인데 15억원만 지불하고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B은행은 자신의 순자산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싸게 판 것이다. 이때 A은행은 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영기매수차익(gain from bargain purchase)'이라고 한다. 영기매수차익은 혼자 앉으나 만약 나타나다면 혹시 자산이나 부채를 잘못 측정한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한다.

M&A는 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자비용 절감 등 여러 이유로 자주 발생한다. M&A를 진행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M&A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아하, 과학

세포는 왜 늙으면 커지고 단단해지는 걸까



제작: 이미지뱅크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세포는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아메바, 박테리아와 같은 생물체는 세포 하나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이고, 인간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60조~100조개에 달하며, 대략 274개의 종류가 다른 세포(섬유아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지방세포 등)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10 μm 정도라고 말하지만, 세포 종류에 따라 크기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면, 크기가 작은 세포에 속하는 정자는 길이가 약 7 μm , 적혈구는 지름이 약 8~10 μm 다. 반면에 남자는 자동차의 약 80~200 μm 로 정자보다 10배 이상 크고, 신경세포의 길이는 최대 1m에 달하기도 한다.

세포는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로, 변식, 성장, 이동, 호흡, 물질대사 등을 한다. 사람의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된다. 핵 안에는 세포의 유전 물질인 유전자와 엔세페라트 등이 들어 있다. 세포질에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세포골격단백질 등 다양한 소기관이 있어 세포의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모양 및 형태를 유지한다.

세포도 노화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이 노화되듯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나이가 든다. 50대 어른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청소년의 세포보다 노화돼 있다.

생물 연구실에서는 세포를 인위적으로 노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세포를 배양접시에 키우고, 보통 3~4일에 한 번씩 세포를 새로운 배양접시로 옮겨주는데 이를 계대배양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세포는 대략 24시간마다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양접시에 세포가 꽉 차게 된다.

계대배양이 15~20회 이상 반복되면 세포 분열이 점차 느려지다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세포 노화(Cellular senescence)라고 한다.

세포 노화는 세포사멸(Apoptosis)과 다르다. 세포의 계대배양 횟수가 증가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거나, 노화가 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고 휴지기(G1)에 멈춘 상태로 장기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게 된다.

이렇듯 세포가 노화되면 분열 및 증식 능력 등 기능이 상실되고, 비정상적인 기능들이 나타나며, 단백질 번역 오류 등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낙수된 세포 기능의 오작동과 회복되지 못한 손상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어릴 때는 부드러웠던 세포가 단단해져게 된다.

세포의 모양과 단단함은 골격단백질에 의해 결정된다

다 같이 우리 손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 손에는 손바닥과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으며, 말랑말랑한 피부와 단단한 뼈로 구성돼 있다. 세포도 마찬가지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양의 액체와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보통은 헬리체로 말랑말랑하다. 세포 안에는 우리 손에 있는 뼈와 같은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을 세포골격(Cytoskeleton)이라고 한다. 세포골격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세포가 이동할 수 있게 하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골격은 액틴 섬유(Actin filament), 미세소관(Microtubule), 중간섬유(Intermediate filament)라는 세 개의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세 단백질은 성분, 구조, 기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세포의 형태 유지와 이동성에 참여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액틴 섬유가 세포의 형태 변화, 이동, 및 단단한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인데, 노화가 되면 세포 내 액틴 섬유의 양이 증가한다.

세포가 노화되면 액틴 섬유가 많아져 단단해진다

세포의 모양과 탄성은 액틴 섬유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액틴 섬유의 양과 분포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세포가 작은 양의 액틴 섬유를 가지고 있거나, 액틴 섬유들이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면 세포는 유연한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세포 내 액틴 섬유의 양이 많거나 액틴 섬유들이 서로 연결돼 조직적으로 잘 구성돼 있으면 세포가 단단해진다. 비유를 하자면, 액틴 섬유가 적거나 느슨한 배열을 하고 있으면 세포는 말랑말랑한 밀가루 반죽처럼 냅 내가 만지는 대로 쉽게 모양이 변한다. 반면 세포 내 액틴 섬유가 많거나 서로 강한 연결을 이루고 있으면 공기 중에 오래 두어 굳어진 밀가루 반죽처럼 손으로 눌러도 모양이 잘 변형되지 않는다. 27세에서 80세 사이의 기증자 14명으로부터 분리한 섬유아세포의 특성을 분석과 결과 고령 기증자의 섬유아세포는 가장 젊은 기증자의 세포에 비해 50% 이상 많은 액틴 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60% 이상 더 단단한 세포임이 확인됐다.

“노화가 되면 섬유아세포 내에 액틴 섬유의 함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단단해지는 걸까?”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변화가 세포의 운명이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당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 과학자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 생물학과 물리학이 융합된 방식으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빈칸추론’ 함정 피하려면 선택지 소거 연습을



김범구 이투스 강사의 영어특강

빈칸 추론: 함정 선지

정부의 수능 길라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으로 영어 과목 역시 출제 트렌드에 큰 변화가 생겼다. 변화된 출제 기조를 쉽게 정리하면 바로 ‘함정 선지’이다. 이제는 제시문의 난도가 많이 낮아졌으며 지나치게 초상적인 소재 또한 출제되지 않는다. 다만 변별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선택지의 난도가 높아졌다. 오늘은 변화된 수능 출제 기조와 함께 빈칸 추론의 함정 선지 대응 전략을 알아보자.

선택지 내용 일치 소거

함정 선지 대응에서 핵심은 선택지를 ‘내용 일치’ 기준으로 소거하는 것이다. 빈칸 추론 유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추론형’ 문항이지만, 선택지를 소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용 일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3번 문제로, 17~19%대 정답률을 기록한 최고난도 문제이다.

-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점]
[2024 예상 33번]

An invention or discovery that is too far ahead of its time is worthless: no one can follow. Ideally, an innovation opens up only the next step from what is known and invites the culture to move forward one hop. An overly futuristic, unconventional, or visionary invention can fail initially (it may lack essential not-yet-invented materials or a critical market or proper understanding) yet succeed later, when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catches up. Gregor Mendel's 1865 theories of genetic heredity were correct but ignored for 35 years. His sharp insights were not accepted because they did not explain the problems biologists had at the time, nor did his explanation operate by known mechanisms, so his discoveries were out of reach even for the early adopters. Decades later science faced the urgent questions that Mendel's discoveries could answer. Now his insights _____ .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three different scientists each independently rediscovered Mendel's forgotten work, which of course had been there all along.

- * ecology: 생태 환경 ** heredity: 유전
- ①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 ② raised even more questions
- ③ addressed past and current topics alike
- ④ were only one step away
- ⑤ regained acceptance of the public

다음으로 ‘탐색’이다.

Ideally, an innovation opens up only the next step from what is known and invites the culture to move forward one hop. An overly futuristic, unconventional, or visionary invention can fail initially (it may lack essential not-yet-invented materials or a critical market or proper understanding) yet succeed later, when the ecology of supporting ideas catches up.

이상적으로, 혁신은 알짜진 것으로부터 오직 한 단계만을 열어주며 문화가 한 발자국만 앞으로 도약하도록 요청한다. 과도하게 초현대적이거나, 색다르거나, 공상적인 발명은 초기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발명되지 않은 본질적인 물질 혹은 중대한 시장 혹은 적절한 이해가 부족 할 수 있다)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지지하는 관념의 생태가 따라잡는다.

위 내용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초기에는 실패하는 발명도 나중에는 ‘성공할 수’, 혹은 ‘사람들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빈칸에도 ‘성공한다’ 사람들은에게 받아들여진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였던 이유는 바로 ‘대응’ 단계 때문이다. 사실 글의 주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식별 혹은 탐색 단계가 끄다로웠던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은 수월하게 읽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탐색’ 단계까지는 제대로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정 선지에 속아 이 문제를 틀렸다.

- ①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 ② raised even more questions
- ③ addressed past and current topics alike
- ④ were only one step away
- ⑤ regained acceptance of the public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른 선택지는 ①번과 ⑤번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①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현대 문제를 따라잡았다.
→ ①번 선택지가 들린 이유는 ‘선후 관계’ 때문이다. 제시문의 내용에 따르면 멘델의 이론은 당대 사람들의 지식보다 더 우수하고 앞서 있다. 그렇지만 ‘멘델의 이론이 현대 문제를 따라잡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보다는 ‘현대 문제를 비로소 멘델의 우수한 이론을 따라잡기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뒤쳐진 것에 앞선 것에 따라잡는 게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후 관계’를 가지고도 함정 선지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⑤ regained acceptance of the public 대중의 인정을 다시금 받았다.
→ ⑤번 선택지가 들린 이유는 ‘regained’라는 단어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re’ 때문이다. 제시문 그 어디에도 멘델의 이론이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은 없다. 아직까지 한 번도 대중의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다시금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함정 선지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길라 문항 이슈로 난이도가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이번 9월 모평은 기존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더욱 많이 출제됐다. 대신 양상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글을 어렵게 출제해도 내용을 이해하면 선택지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젠 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선택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출제 기조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지 소거 연습은 필수이다. 특히, ‘내용 일치’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소거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은 수능 영어의 변화된 ‘빈칸 추론’ 트렌드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 시간에는 빈칸 추론의 세부적인 유형들과 풀이 전략을 살펴보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빈칸 추론의 3단계를 거쳐 보자. 가장 먼저 ‘식별’이다.

Now his insights _____.

오늘날 그의 통찰력은.

- 오늘날 멘델의 이론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내면 되겠구나.
- 멘델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오늘날’에 대한 내용만 찾아주면 되겠다.



영화 '도리안 그레이'의 한 장면.

제경08

아름다움과 추함을 눈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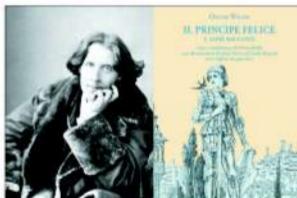
オス카 와일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행복한 왕자'

캔버스에 담긴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그리고 금침침이 벗겨지고 보석으로 치장된 두 눈이 때어진 왕자 등장. 두 대상에 대해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자면 보이는 바대로 전자를 아름다움에, 후자를 추함에 해당한다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행복한 왕자'의 주인공들이라면, 그 추측은 너무나 단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름다운 그림 속 청년과 흉죽한 왕자의 등장 앞에서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 고개를 흔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먼저 아름다운 그림 속 청년이 누구인지 따라가 보자. 그의 이름은 도리안 그레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목구멍을 지닌 누구라도 한번 그를 보면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인물이다. 그의 아름다움에 경도된 어느 화가는 이 청년의 절을 화폭에 옮기긴 다. 그렇게 도리안 그레이는 자신의 초상화를 손에 넣게 된다.

한편, 살아 있는 동안 걱정이나 근심을 도무지 암수 없는 상수시(sans-souci, 프랑스어로 '걱정 없는' 의미) 궁전 속에서 오롯이 행복의 나날만을 보낸 왕자가 있다. 사후 그를 기리는 등장이 도시 한가운데 세워지게 되며 왕자는 생전에는 결코 봄았던 궁박 시민들의 삶을 생생히 목격하게 된다. 반짝이는 두 개의 사파이어 눈과 멋진 겉을 한층 더 빛내주는 뷰티 장식, 그리고 몸 전체가 순금으로 뒤덮인 왕자 등장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생각한다. '꼭 현사 같아.'

여기까지 보면 도리안 그레이도, 왕자도 모두 아름답고 화려하다. 타인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으며 그 아름다움을 천천히 감상하게 한다. 하지만 도리언 그레이와 왕자의 행보는 이내 엇갈린다. 도리언 그雷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신비로움이 되어 빛을 발하고, 왕자의 등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전락한다. 금기야 왕자의 조각상은 끝내 데려지며 예술을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제이제 아름다지 않으면서 웃기도 어렵다'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각기 속사정이 있다. 아름다운 도리언 그雷이는 하루가 다르게 흉측



オスカ・ワイルドの「 행복한 왕자」表紙。

제경06

방종과 타락 일삼았던 도리언 아름다웠던 초상화가 흉죽하게 변한 그림대로 비참한 죽음

모든 곁 남에 내어준 왕자 등장 남루하게 변해가지만 영생 얻어

하게 변해가는 자신의 초상화로 인해 전전긍긍한다. 왕자 등장은 마을 곳곳의 어려운 형편으로 곧곤에 처한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절을 이루지 못한다.

사실 도리언 그雷이는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은 지 오래다. 그의 오랜 방탕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모는 변함없이 수려하고 세월의 흔적 역시 남지 않아 병사가 위한 경단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의 초상화는 날마다 변해간다. 사실상 그의 초상화는 그의 삶과 실존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름이 깊이 패고 추악한 인상으로 점점 달라지는 그 초상화를 도리언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잡인 깊숙이 감추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 한다.

한편 왕자 등장은 날씨에 추위질수록 자신의 아름다움을 서서히 잊어간다. 가장 먼저,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하는 거난한 집의 아픈 아이를 위해 자신의 겉을 정식하고 있는 투비를 떠내리 전한다. 사파이어로 된 한쪽 눈은 춥고 배고픈 청년을 위해서, 나머지 한쪽

눈은 맨발의 성냥팔이 소녀를 위해서 내어놓는다. 마지막으로 온몸을 깨끗한 금박 장식은 어두운 꿀목길의 꽁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벗겨 내어준다. 이 모든 과정은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야 하는 제비의 화생이 되어 이루어진다. 귀여운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던 제비는 그로 인해 추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초라한 풀꽃으로 왕자의 등장 밑에 떨어져 죽고 만다.

다시 도리안 그雷이, 그는 결국 파멸을 선택한다. 숨진 채 사람들에게 발견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아름다운 도리언이 아니다. 사람들의 눈에, 도리언에 의해 빚어진 재벌 발견은 초상화는 처음 그려진 당시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타락과 뇌폐에 자신을 내맡긴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도리언의 모습은 주름투성이에 모든 추악과 혐오의 징兆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은 그의 반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야 그인 줄 알게 된다. 결국 아름답고 화려했던 두 인물, 도리언 그雷이와 왕자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도리언 그雷이의 최후에 더 이상의 반전은 없다. 반면, 작품의 저자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에게 다른 반전을 허용한다.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라는 신의 명령에 날 심장과 죽은 새를 바치는 천사의 등장이 비단 그것이다. 신은 결국 제비와 왕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다.

우리는 눈을 통해 많은 것을 본다. 그리고 아름답고, 추한 것을 구분하고 구별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 추하고 평가는 것이 정말 그런지는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지도 모른다.

도리언 그雷이와 행복한 왕자의 결말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떻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 '도리언 그雷이의 초상'과 '행복한 왕자'를 차근차근 읽어볼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암ule를 갖추게끔 우리를 안내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목소리가 저 멀리 들려온다.



윤경정 대일외교교사

달라진 게임 위상…부모도 달라져야



지난 9월 28일, 2022 황자부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스트리트 파이터 V' 부문의 결승에서 대한민국의 김관우 선수가 우승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관우 선수는 수십 년간 게임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던 어머니의 축하 문자에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의 나이는 마흔 냇. 어릴 적부터 '게임을 한다'는 '오락실에 다닌다' 등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과 꾸지람을 겪던 끝에 결국 국가 대항 경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국위를 선양했다.

부모 세대에게 '게임'은 종종 시간 낭비, 학업 방해, 심지어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인식되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시대 변화와 함께 점차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e스포츠의 급부상과 함께 게임이라는 문화 현상이 점차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e스포츠의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은 단순한 경기뿐 아니라 전략적 사고, 팀워크,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요구하는 지적 활동으로서의 게임을 '스포츠'로 인정하는 중요한 변화다. 더 이상 게임이 단순한 '오락'의 한계를 넘어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열광하는 게임인 LOL(리그오브레전드)이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게임들의 공식 대회 상금 규모나 경기 시청률, 관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녀를 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e스포츠, 단순한 오락 넘어
전문적 직업 영역 자리잡아
전략적 사고·스트레스 해소
게임이 주는 효과 무궁무진
부모도 경험하고 이해해야**

게임은 결코 나쁜게 아니라
적절한 관리·지도 병행되면
긍정적 삶의 일부 될수 있어

부모 사이에서는 여전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모 세대의 경험과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세상을 달리 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자녀가 게임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부모도 자녀와 함께 특정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집중력, 항상,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등 게임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체험해볼 수 있다. 조직적이고 어려운 게임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유튜브나 국제 경기 등의 게임 관련 방송을 함께 보며 자녀의 설명을 듣고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고 노력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게임이 학생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학업과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의 게임 시간을 무조건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자녀와 학생 스스로가 학업, 여가, 그리고 게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게임 시간표를 만들거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게임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합의된 약속'을 바탕으로, 자녀 스스로가 통제하여 게임을 즐기는 자녀

스러운 루틴을 형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시각을 바꿔 게임 내 성취를 학업이나 다른 활동과 연계하여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성, 전략적 사고,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수 있다는 점을 부모가 이해한다면, 게임 관련 세대 간의 대화는 더욱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다. 게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와 지도 하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는 수능일인 11월 16일에 대한 민국 최대의 게임쇼인 '지스타(G-STAR 2023)'이 개최된다. 우연일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수능'은 자녀의 입시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라면 누구나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단어다. 게임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적정이 되는 부모라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에 자녀와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글로벌 게임 산업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 규모와 열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녀들의 관심사와 적성을 이해해-

여, 돋보기한 가족에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래 자녀의 수능 결과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손웅철 원 커뮤니케이션 대표



매년 자립준비 청년 200명에 장학금·금융 교육

교보생명

‘꾸준함에 담아 있다.’

교보생명은 사회공헌활동 중심에 이 문장을 두고 새긴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꾸준하고 장기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보생명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의 진정한 가치다.

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주도할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교보생명은 자립준비 청년의 흔들서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은 물론 금융 교육과 자격증 취득 까지 세심하게 행기며 자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교보생명은 금융 교육과 자립성장지원사업으로 매년 200명 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돋우고 있다. 자립준비 청년들은 매년 1만 8천 원이 넘는 장학금을 앞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이 교보생명 금융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인당 자립활동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통장 개설부터 저축, 펀드, 보험, 주식 등까지 실제 금융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다. 모든



교보생명은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꼬나루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교보생명

컨설팅은 일대일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자립 활동비 사용과 금융상품 투자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종합 진단과 평가 과정을 제공한다.

교보생명은 미래 체육 인재 육성에도 진심이다.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2019년부터 ‘교보 체육 꼬나루 육성 장학사업’을 통해 스포츠 유망주들을 장기 지원함으로써 미래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체육 유망주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교보생명은 1985년부터 ‘교보생명컵 꼬나루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육상·수영·빙상·체조·유도·탁구·테니스 7개 기초종목에 초등학생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로, 그동안 대회를 거쳐간 선수만 15만명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스포츠 스타 후원이나 프로구단 운영 등 일반적 기업 행보와 달리 기초종목, 그리고 체육 꼬나루 후원에 집중해 왔다. 정례기 불확실한 학생들이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인 성격이 짚는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기초종목을 활성화하고 저변을 넓혀 스포츠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우람 기자

일상속 돈 이야기 뮤지컬로 풀어… 이해가 쑥쑥

신한은행

“실제 영업점을 만들어 놓아, 사실상 아직은 직접 해볼 일이 없어 체험·설명, 카드 발급 등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해준 실물 증권과 뉴스, 주식시세판·현금입출금기(ATM) 체험 등 아이가 물어와서도 쉽고 새롭고 조잡하네요. 부모를 위한 금융사박물관 해설과 아이들 용돈관리 교육도 마련된 데들도 살로 알찬 교육이었습니다.”(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 참가부모)

“늘 꿈꿔왔던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원이 되기 위한 나쁜 인성과 금융 상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꿈을 한 뱡 더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진로직업체험교육에 참가한 서서율생활고등학교 학생)

신한은행은 2012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금융소외계층에게 보다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해 건강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흥미롭게 금융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금융교육 뮤지컬 프로그램인 ‘신한 Shining Star’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책과 금융사기, 아르바이트 등 일상 속 금융을 소재로 담아 시나리오를 매년 제작하고 있으



지난달 28일 서울시 관악구 광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한 Shining Star 프로젝트’ 청소년 금융교육 뮤지컬 ‘웰컴투 코리아’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며, 학교를 방문하거나 팬으로 뮤지컬을 공연해 많을 청소년에게 공감과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는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중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연말까지 지역 학교를 방문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뮤지컬 ‘와.계.인.(와콤고 힘들더라도 계속 달리다 보면 인간되겠지)’을 공연해왔다. 특히 뮤지컬 공연에 참여한 40여 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이들에 뮤지컬 제작·참여를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고 있다.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소년은 “관

심은 많았지만 기회가 없어 막연하기만 했던 뮤지컬 배우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한은행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과 온·오프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전국 곳곳의 청소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 등도 있다.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은 2012년부터 운영한 신한은행의 대표 금융교육으로 초등학생 대상 미션수행형 금융체험 프로그램이다.

한우람 기자

가짜뉴스 심의 위한 기준 명확해야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으로 나온 '인터넷 뉴스 심의'가 시행되기 전에 정부의 언론 장악 가능성이 없도록 투명한 언론 심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청담고 2학년 서지호



중대법 시행에도…사망사고는 여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사건·사고는 줄이지 않는다.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고 산업안전 장비를 고도화해야 한다.

광주 광남중 3학년 이예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 방안으로 나온 인터넷 언론 심의가 '언론 장악' 시도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애당초 충돌했다. 언론 심의 시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다. 정부는 언론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적발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언론을 압박하거나 이중 규제로 원칙적 조치가 되면 안 된다.

언론 심의 시행에 앞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억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2016년 브릭스에서 6명의 기자와 언론매체 직원들에게 유퇴가 선고됐고 100개 이상의 매체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친정부 성향을 보인 매체만이 살아남은 브릭스에 언론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언론 심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지난해 7월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45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없이 경영계에 치나친 압박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 시행이 사망 사고 감소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업 활동만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내년 1월 27일부터는 소규모 업체 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업체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큰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법 시행의 위치가 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도록 법명을 변경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장비 고도화 또한 필요하다. 아무리 잘 좋은 제품을 만들에도 산업재해로 수십 명씩 죽어 나간다면 의미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도구로 산업안전 장비를 고도화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짧은 영상 콘텐츠 '수동적 뇌' 만들어

뇌에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시청을 줄여 일상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여자상업고 2학년 이채영



한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대책 시급

국내 마약 밀반입과 유통 행태가 대단해지고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기소에 이어 배우 이선균 씨와 가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 필로폰이 섞인 음료가 배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월 마약성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둘진해 행인을 놔사에 빠뜨렸다. 지난 6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제보됐다. 최근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판이 뿌려져 있다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4일에는 세종대 캠퍼스 앞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담배를 준다는 조건을 본 학생들이 경찰에 마약 의심 신고를 해 또 한 번 총격을 주었다. 을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2700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사기거나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 투약이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다. '피자 한 판보다 산마약'은 소비력이 약한 세대에게 달콤한 유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마약 치료 관련 예산이 0원인 것도 있다. 수도권 최대 마약치료기관인 인천 사랑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배관 위기로 몰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마약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경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수사팀을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을 보면서 30분은 물론, 한 시간을 흡족 넘겨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숏폼(Short-form)'은 15초에서 최장 3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을上で 제작된 콘텐츠다. 짧고 강렬하면서 자극적인 소재로 제작돼 등록되기 쉽다.

숏폼 시청 시에는 '능동적 접증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접증력'이 사용된다. 이에 익숙해지면 고차원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을 짐작 사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숏폼은 정신건강이 악화시킨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불안,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팝콘드레인'이라고 일컫는다. 뇌가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내성해 생겨 결국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는데 이를 팝콘 터지는 것에 비유한 용어다.

숏폼 시청에 따른 영향을 줄이려면 평소 숏폼 시청을 자제하는 게 좋지만, 어렵다면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봐야 한다. 청소년은 하루 2시간 이하로 시청할 권한다. 필요할 때에만 시청하고, 숏폼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노력한다. 숏폼 영상을 보더라도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휴식 시간에 영상 콘텐츠와 다른 유형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거나 독서 등 뇌에 입력하는 콘텐츠 유형을 바꿈으로써 뇌 건강을 지켜야 한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2024년 민족대중 TEST

2024년 시험 일정

| | | |
|--|---|---|
|  <p>47회</p> <p>2024년 5월 25일 (토)</p> |  <p>48회</p> <p>2024년 10월 19일 (토)</p> |  <p>49회</p> <p>2024년 11월 30일 (토)</p> |
|--|---|---|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민족대중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점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점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강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test.org> | 이메일 : mkttest@mkt.co.kr